FX Market Daily

2025-09-08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50원 하락한 1,391.0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.50원 하락한 1,391.0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50원 상승한 1,393.00원에 개장했다. 오전장에서 환율은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을 따라 1,389.6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. 다만,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 관망세 및 결제 수요에 환율의 하단은 제한되며, 1,391.0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3.9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8.07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93.00	1393.50	1383.80	1391.00	1391.80
엔화	937.54	945.15	935.82	943.38	-
유로화	1621.63	1632.40	1620.97	1629.69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69	-6.21	-13.14	-24.94
결제환율(수입)	-1.37	-5.28	-11.19	-21.5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고용 쇼크에...1,38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5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91.00) 대비 3.45원 하락한 1,385.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8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2.2만 명 증가해 예상치(+7.5만) 및 전월치(+7.9만)를 모두 하회했다. 특히 6월 수치는 -1.3만명으로 확정되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8월 실업률은 전월비 0.1%p 상승한 4.3%로 예상치에 부합했다. 미국 고용시장 냉각신호에 FedWatch의 연준 9월 금리인하 확률은 100%로 상승했다. 25bp 인하 확률이 92%로 유력하나, 빅컷(50bp 인하) 기대도 부상했다. 고용 부진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에 미국 2년물은 7.90bp, 10년물은 8.70bp 하락해 각각 3.511%, 4.0760%로 마감했다. 달러인덱스는 0.55 하락한 97.75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약달러 충격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
다만, 수입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 유입에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일본 이시바 총리 사임 발표로 인한 엔화 약세에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

1381.00 ~ 1390.60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374.36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45원↓
- ■ 美 다우지수 : 45400.86, -220.43p(-0.48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3.2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55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